

# 윤리와 사상, 세상의 모든 선지

01 동양 윤리 사상	.....	004
02 한국 윤리 사상	.....	004
03 서양 윤리 사상	.....	004
04 사회 사상	.....	004

# 교재 소개

안녕하세요, 맑은 달 정월입니다. 이렇게 『윤리와 사상, 세상의 모든 선지』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현역 시절부터 스스로 이 교재를 만들어 공부해 왔고, 이 교재를 통해 사교육 한 번 거치지 않고 수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교재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교재의 특징을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01 2016-2020학년도 평가원 기출 시험과 2018-2020학년도 연계 교재**

이 교재는 “세상의 모든 선지”라는 말 그대로,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부터 2020학년도 수능까지, 2018학년도 연계 교재부터 2020학년도 연계 교재까지! 총 5개년의 평가원 선지와 3개년의 연계 교재 선지를 모아놓았습니다.

평가원 기출 선지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실었으며, 연계 교재 선지는 유의미한 선지들만 골라서 수록했습니다. 또한 평가원 기출 해설을 참고하여 출제될 만한 해설을 변형하여 수록 하였습니다. 평가원 기출 해설에서 변형된 선지가 작년 수능에서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하나의 선지도 빠짐없이 꼼꼼히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02 고난도 선지 해설**

방대한 양의 선지를 하나도 거르지 않고 수록하다 보니 모든 선지를 해설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난도 선지의 해설만 각주로 달아놓았고, 쉬운 선지에서도 이해에 도움이 될만한 제시 문들 역시 각주로 넣었습니다.

## **03 직접 푸는 문제 풀이 교재? 빠르게 복습하는 복습 교재?**

이 교재는 정답 표시가 되어있는 교재 그렇지 않은 2가지 유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권 모두 공부하는 방법은 직접 문제를 풀면서 정답지로 2번째 유형의 교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두 권을 공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와 촉박하다면 1번째 유형의 교재는 풀지 않고, 2번째 유형의 교재만 컬러로 복사하여 빨간 셀로판지로 빠르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 **04 교육과정 개정 전의 기출문제에서 막힌다면**

교재는 교육과정 개정 전의 내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능에 맞게 내용을 줄일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고생하며 모든 내용을 넣은 이유는, 기출 문제를 직접 뽑아 푸는 경우 버리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잠깐 확인하며 눈에 익힌다고 손해를 입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부하다가 알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거나, 다른 개념과의 이해에 연관이 되는 부분에 참고해주면 좋습니다.

# Q&A

## **01 “……간과한다”, “……무시한다” 등 부정 선지가 헛갈려요.**

선지의 인과 관계를 변경한다거나 선지 끝부분을 고치는 경우 그 선지는 변형했다고 기록합니다. 학생들이 변형 전의 선지를 찾아보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선지를 그대로 실으려고 했습니다. 질문처럼 부정 선지의 내용이 헛갈리는 경우는 “간과한다, 무시한다”와 같은 내용을 제거하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본성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의 경우, 간과하고 있다는 내용은 제거하고 <인간의 본성이 선하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읽는 것입니다.

## **02 저는 개념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 교재를 풀어도 되나요?**

교재 소개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교재는 모든 선지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숙지해야하기 때문에 최소 3등급의 학생들이 이 교재를 볼 것을 추천합니다.

## **03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재는 없나요?**

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재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후에 출간합니다. 올해 6월, 9월 평가원 시험의 모든 선지와 2021 수능특강, 수능완성 중요 선지까지 모두 수록하여 제작합니다. 이때에는 올해 교육 과정에 맞게 이전 교육 과정의 내용은 삭제합니다. 또한 2014학년도, 2015학년도 평가원 시험의 선지도 모두 수록할 예정입니다.

## **04 이 교재를 구매하고 다운 받아서 여러 권을 제본하여 친구들과 나눠가져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명이 구매하여 자신이 여러 번 인쇄해 보는 것은 괜찮지만 하나의 파일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돌려보는 것은 안 됩니다. 윤리와 사상 판매량에 따라 생활과 윤리 제작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의 소중한 노동 시간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1인 1구매 꼭 부탁드립니다!

**동양**

**윤리**

**사상**

# 공자·맹자·순자

## 공자

	정명 사상	공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시비선악을 엄격히 구별하고 정명(正名)을 실천해야 한다. (18-06-04)		
2	사회 구성원 각자의 직책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게 해야 하는가? (20특)	유가	
3	좋은 정치의 출발은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게 되는 것이다. <sup>1)</sup> (19완)	Platon	
4	자신의 직분과 지위에 알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 (19완)		
5	좋은 정치의 출발은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sup>2)</sup> (19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효제(孝悌)·충서(忠恕)	공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사람들이 충서(忠恕)의 덕을 실천하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17-06-04)	맹자	
2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참된 사랑의 시작으로 보는가? (17-06-04)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17-06-20)		
4	자신의 수양에 힘쓰고 다른 사람에게 서(恕)를 실천해야 한다. (17-11-01)		
5	효(孝)를 모든 도덕 행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가? (15-11-04)	맹자	
6	효제(孝悌)를 인을 실천하는 근본으로 본다. (14-11-06)		
7	가족에 대한 사랑을 타인에게로 확장하여 실천하였다. (14-11-07)	유가	
8	도를 깨닫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19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9	참된 인격 수양은 사후 세계에서만 가능하다. (19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18수완 | 바람직한 국가가 실현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 ☞ 공자·플라톤

2) 공자는 백성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았다.

	인(仁)	공통	☒
1	하늘을 인륜의 모범으로 삼아 인의의 도덕을 실현해야 한다. (18-09-04)		
2	이상적 삶을 구현하려면 누구나 덕에 따라 살아야 한다. (18-11-03)	노자	☒
3	천지(天地)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만물에 대한 사랑을 강조한다. (17-06-20)		
4	인은 예를 실천함으로써 획득되는 정신이다. (20특)		
5	인(仁)이란 남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다. (19완)		
6	인(仁)이란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이며 시비(是非)를 분별하는 사랑이다. (19완)		
7	내면의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해 빈곤에서 벗어나야 한다. ☒ (19완)		

	예(禮)	공통	☒
1	예(禮)는 인간의 도덕적 삶에 필수적인 사회 규범이다. (19-09-06)	맹자	
2	성현이 제정한 예악에서 벗어나 개인적 욕구를 추구해야 한다. (17-11-01)		☒
3	예(禮)는 타고난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외면적 준거이다. (14-06-05)	순자	
4	예는 인과 달리 실천 근거가 자신에게 있다.3) (20특)		
5	하늘이 준 덕을 잃은 사람이 행하는 예는 참된 예가 아니다. (20특)		
6	예에 의한 교화는 개인의 인격 함양과 사회 안정의 요건이다. (20특)	유가	
7	예를 통해 인의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 4) (19완)		
8	형식화된 예는 진정한 예가 아니다. (18완)		

	도덕 규범	공통	☒
1	성인의 도를 구현하기 위해 도덕적 규범을 실천해야 하는가? (20-09-03)	유교	
2	현실의 도덕적 질서를 부정하고 대자연의 섭리를 따라야 한다. (17-11-01)		☒
3	도덕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인간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19완)		☒
4	모든 행위가 법률에 맞도록 모든 욕구를 제거해야 한다. (19완)	유교	☒
5	수양을 통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도덕규범에 합치하는 경지에 도달하고자 한다. (18완)		
6	이기심을 극복하고 보편적인 규범을 따른다.5) (18완)		

3) 인의 실천 근거는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4)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5) 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기적인 욕망을 이기고 보편적인 규범인 예를 따라야 한다.

대동사회		공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인륜과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20-06-17)		
2	지도자의 적극적 역할[有爲]을 강조하는 정도 : 높음 (20-06-17)		
3	통치자는 도덕적 모범을 보임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해야 한다. (18-11-03)		
4	통치자는 재화의 고른 분배를 통해 사회적 화합을 꾀해야 한다. (18-11-03)		
5	군주의 자격을 도덕적 양심에서 찾고자 하는가? (15-06-15)		
6	천명을 받은 성인(聖人)만이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15-06-15)		
7	무력에 의한 통치보다 덕(德)에 의한 통치를 행해야 한다. (14-09-05)	맹자	
8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도덕 공동체를 추구한다. (20특)		
9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려면 경(敬)으로써 자신을 닦아야 한다. (19특)		
10	재화의 적음을 걱정하기보다 분배의 형평성을 걱정해야 한다. 6) (20수완)		
11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면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19수완)		
12	통치자가 덕을 갖추면 백성들이 다스려진다. (18수완)	노자	

형벌		공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형벌의 공정성을 우선시한다. (19-09-06)		
2	형벌(刑罰)은 예악을 바로 세워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가? (16-06-04)		
3	예법과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9완성)		

현세적 삶		공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현세보다는 자연과의 합일을 통한 내세에서의 행복을 강조한다. (17-06-20)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내세의 길흉화복을 예측하기 위해 초월적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17-11-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고 철학적, 예술적 논변을 즐기며 산다. (16-09-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맹자

- 6) 19수완 |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공유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공자·플라톤  
 18수완 | 분배가 고르지 못하면 재화가 많아도 사회가 불안하게 되는가?

**한국**

**윤리**

**사상**



# 퇴계·율곡·다산

## 퇴계·율곡 공통점

	성(性)·이(理)·기(氣)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이와 기는 모두 형태가 없다는 점에서 같은 것인가? (19-09-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인간이 본래 타고난 성(性)이 곧 이치[理]임을 간과한다. (19-09-13)	
3	이는 순전한 것으로서 사람의 마음에만 있는 것인가? (18-06-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이와 기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17-06-11)	
5	이와 기가 결합한 기질지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17-06-11)	
6	기질지성이 교정되면 본연지성으로 변할 수 있다고 본다. (17-06-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이와 기는 개념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17-11-07-변형)	
8	기에서 비롯된 사육만 따르면 악해질 수 있다. (17-11-07-변형)	
9	치우친 기질 속에서도 이가 갖추어져 있다고 본다. (16-11-06)	
10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15-11-06)	
11	기가 발할 때에는 항상 이가 기를 탄다고 본다. (15-11-06)	
12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 (15-11-06-해설)	
13	천리(天理)인 인의예지를 마음에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13-11-11)	
14	이는 기의 동정에 따라 선하거나 악하게 된다. <sup>1)</sup> (19특)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모두 기가 발해서 드러난 것인가? <sup>2)</sup> (18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성이 없으면 사람은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18완)	

1) 이는 언제나 순선하다.

2) 성은 발하지 못한다.

사단(四端) · 칠정(七情)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사단이 생성되게 하려면 누구나 기질을 교정해야[矯] 하는가? (20-11-09)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사랑[愛]이라는 일반 감정과 측은해 하는 마음이 사실상 별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sup>3)</sup> (20-06-07)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사단은 이가 마음 밖에서 발하여 드러나는 것인가? (19-09-12)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칠정은 선 또는 악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가? (19-09-12)	
5	칠정(七情)은 기가 발할 때 이가 올라탄 것으로 순전한 감정이다. (19-11-13)	<input checked="" type="checkbox"/>
6	사단은 이가 발한 성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정인가? (18-06-11)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본성이 마음에서 발현된 결과를 사단이라고 본다. (17-06-11)	
8	칠정이 사단과 달리 선악 중 어느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본다. (17-06-11)	
9	본성에 천리(天理)인 사덕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16-06-08)	
10	사단과 칠정에는 모두 악(惡)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6-06-08)	
11	칠정은 기의 능동적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감정인가? (16-09-14)	
12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인가? (15-09-06)	
13	사덕(四德)을 인간의 도덕적 본성이라고 본다. (14-06-09)	
14	칠정을 바로 잡으면 사단으로 발하는가? (14-09-09)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	칠정은 외부로부터 감응되어 발한 정인가? (14-09-09)	
16	사단(四端)을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본다. (14-11-06)	
17	사단을 본성인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단서로 파악하는가? (13-06-13)	
18	사단과 칠정에는 이와 기가 함께 있다. <sup>4)</sup> (20특)	
19	사단은 본래 순선이지만 칠정은 선하거나 악하게 될 수 있다. (19완)	
20	사단은 감정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본성이라고 할 수 없다. (18완)	
21	사단은 본성이고 칠정은 감정이지만 그 연원이 같다. (18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사단은 마음의 작용이고 사덕(四德)은 마음의 본체이다. (18완)	
23	사단만이 순전한 정(情)이라고 본다. (18완)	
24	성이 없으면 사람은 그 어떤 선도 행할 수 없다. (18완)	
25	마음의 작용에서 사단과 칠정이 구분되기는 어렵다. (18완)	

3) 제시문 | 갑(이황), 을(이이)은 사단과 칠정을 이나 기와 관련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단과 칠정은 각각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갑, 을의 입장에 대해 말해 볼까요?

4) 이와 기는 서로 떨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단과 칠정 모두 이와 기가 함께 있다.

**서양**

**윤리**

**사상**

# 고대

## 상대주의 · 보편주의

### 소피스트

	회의주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은 없음을 간과한다. (20-09-19)	
2	선에 대한 기준은 인식할 수 없지만 궁극적인 선은 존재한다. (19-06-02)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모든 사회에 보편타당한 객관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19-09-03)	

	쾌락주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감각적 경험을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19-06-02)	
2	덕이 욕구 충족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본다. (17-09-16)	<input checked="" type="checkbox"/>

	상대주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각자의 가치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19-11-10)	
2	이성적 사유를 통해 보편적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17-09-16)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선이 주관적인 것이므로 공통된 정의를 내릴 수 없다고 본다. (17-09-16)	
4	인간이 만물의 척도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한다. (16-11-01)	

# 소크라테스

보편주의 · 이성주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통점)		☒
1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sup>1)</sup> (20-06-04-변형)	
2	남을 돕는 것은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임을 알아야 합니다.	☒
3	선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함을 간과한다. (20-09-19)	
4	부단한 진리 탐구를 통해 객관적 존재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19-06-02)	
5	이성보다 사회의 관습에 따라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 (19-11-10)	☒
6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좋음에 대한 객관적 앎이 있어야 한다. (18-09-02)	
7	참된 앎이 덕 그 자체임을 깨닫고 항상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16-09-16)	
8	덕의 실천을 위해 반드시 이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16-09-16)	
9	진리가 상대적임을 자각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16-11-01)	☒
10	인간의 자연적 감정을 중시하고 사회적 공감을 추구해야 한다. (16-11-01)	☒
11	도덕과 이성은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다. (18완)	

주지주의(主知主義)		공통	☒
1	남을 돕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0-06-04)		
2	덕의 실천은 참된 앎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한다. (20-09-19)		
3	덕을 갖추지 않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본다. (20-11-06)	Platon	☒
4	지혜를 갖추어도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 (20-11-14) (19-11-10)		☒
5	앎이 없어도 지나친 욕구에 대해 절제의 덕을 지닐 수 있다. (20-11-14)		☒
6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다. (19-09-03)		
7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18-11-06)		
8	덕 있는 사람이 되려면 덕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18-11-06)	Ari	
9	정신의 탁월성이 지혜만으로도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17-09-16)		
10	인간이 무지로 인해 악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16-09-16)	Ari	
11	선에 대한 지식은 자발적 악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가? (20완)		
12	정의는 행복을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덕임을 간과하고 있다. (18완)		

1) 원래 선지 | 남을 돕는 것은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덕복합일		공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근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나의 행복과 무관함을 알아야 합니다. (20-06-04)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19-06-02)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덕은 지식이며 덕을 갖춘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19-11-10)		
4	삶의 목적인 행복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덕이 필요하다. (18-11-06)	Ari	
5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본다. (16-09-16)		
6	행복이 지식과 무관함을 인식하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16-11-01)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참된 앎이 덕 그 자체임을 깨닫고 항상 지혜를 사랑해야 한다. (16-11-01)		

무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모든 악행은 무지의 결과이므로 항상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sup>2)</sup> (19특)		
2	모든 덕은 참된 앎에서 나오고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19완)		

무지의 자각 · 영혼의 수련		공통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 (19-06-02)		
2	이성적 추론을 통해 무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한다. (18-11-06)	Ari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나쁜 행동이 무지와 의지의 나약함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17-09-16)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진리 탐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지를 자각하는 데 있다. (19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모든 악행은 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18완)		
6	무지의 자각을 진리 탐구의 기본 조건으로 본다. (19완)		

정념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우리의 정념, 즉 감정과 욕구는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절되어야 할 것들이다. <sup>3)</sup> (18완)		

2) 소크라테스는 무엇이 선인지 알면서 자발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인간의 그릇된 행위는 무지의 결과이며, 언제나 비자발적인 것이라고 보았다.

3) 소크라테스는 정념이 감정과 욕구의 제거를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사회**

**사상**

# 국가론

##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에 대한 다양한 입장

<p><b>인간 본성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동물이며,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가가 형성됨</li> <li>• 인간의 본성에 따라 국가를 구성하고 구성원이 되었다면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임</li> <li>• <b>아리스토텔레스</b> 정치적 의무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는 사실로부터 자연적으로 파생되는 현상임</li> <li>• <b>한계</b> 특정한 국가 공동체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인간의 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있음. 국가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와 비교하여 우선적인 충성과 헌신을 요구할 만큼 최상의 공동체가 아닌 경우도 있음</li> </ul>
<p><b>혜택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 국방 등 공공재의 혜택이나 제도, 법률 등 관행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정치적 의무를 지게 됨</li> <li>• <b>흠</b> 국가가 안전과 보호, 평화와 질서 유지라는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적 의무를 다해야 함</li> <li>• <b>한계</b>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조세나 병역을 포함하여 생명까지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임. 국가를 수단적 가치로만 여기게 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의 여부만을 고려하여 정치적 의무 이행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li> </ul>
<p><b>동의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는 개인들의 동의에 의해 형성되며 국가 형성에 대한 동의로부터 정치적 의무가 발생함</li> <li>• 시민이 국가의 권위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만 국가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국가와 시민 사이의 상호 계약으로부터 정치적 의무가 비롯된다고 봄</li> <li>• <b>로크</b>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함</li> <li>• <b>한계</b>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현실적으로 개인이 정치적 의무를 이행하기로 동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어떤 나라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복종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li> </ul>
<p><b>자연적 의무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을 보존하고 존중할 의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의무 등 인간이면 누구나 따라야 할 자연적 의무가 있는데, 국가에 대한 충성과 복종 역시 자연적 의무에 속함</li> <li>• 인간이 국가를 구성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인간이 국가에 충성하고 복종해야 하는 정치적 의무 또한 정의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자연적 의무임</li> <li>• <b>한계</b> 정치적 의무 중에는 도덕적 선이 아닌 효율성이나 편의성 등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존재함</li> </ul>



# 기타

유토피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상 사회는 공동으로 노동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이 풍족한 사회이다. <sup>1)</sup> (16-09-02)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이상 사회는 경제적 풍요로 인해 사회 안에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다. <sup>2)</sup> (16-09-02)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플라톤

철인 정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선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현실에 존재할 수 있는가? (20-09-07)	
2 철인왕은 이성이 뛰어나지만 참주는 욕망이 우세하다. (18-06-03)	
3 철인왕은 영혼의 세 부분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다. (18-06-03)	
4 철인왕의 지혜는 국가를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덕이다. (18-06-03)	
5 선의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철학자가 이상 국가를 통치한다. (18-09-02)	
6 이상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절제의 덕이 필요하지 않다. (18-11-02)	<input checked="" type="checkbox"/>
7 지혜의 덕이 이상적인 통치의 필수 조건이 된다. (16-06-02)	
8 이상 사회는 수호자 중에 선발된 지혜로운 소수가 통치하는 사회이다. (16-09-02)	
9 모든 계급의 철폐가 이루어지고 지혜로운 자가 통치한다. (16-11-02)	<input checked="" type="checkbox"/>
10 철인이 통치함으로써 철학과 정치권력이 결합된다. (20완)	
11 국가가 이상적 상태에 이를 경우 모든 구성원이 절제할 수 있게 되는가? (20완)	
12 정의가 실현된 국가에서는 피치자의 이익이 최우선시되는가? (19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3 통치자가 자신과 국가를 위해 물질적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19완)	
14 모든 사람들의 재산이 공유되는 사회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sup>3)</sup> (20완)	<input checked="" type="checkbox"/>
15 오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선의 이데아를 인식한 사람이 다스리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19완)	
16 인간의 행복은 국가 공동체에서 윤리적으로 행위할 때 실현 가능하다. (19완)	
17 국가와 개인이 올바르게 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본다. (18완)	

1) 유토피아에는 사유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유토피아에도 사회 규범은 존재한다.  
 3) 플라톤은 수호자 계층의 재산 공유를 주장하였다.